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관 완공 -
새로운 반세기를 향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올해부터 호주·호적은 없습니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됩니다.

4 • 새 해 메시지

6 • 특별기획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관 완공

10 • 기획 | 2008년 상담소

12 • 특집 1 | 이태영 선생님 9주기 추모예배

13 • 특집 2 | 부모폭력과 자녀의 삶 심포지엄 II

20 •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23 • 인터넷 상담

24 • 결혼과 인생(60)

25 • 상담소 소식

26 • 지부 소식

27 • 상담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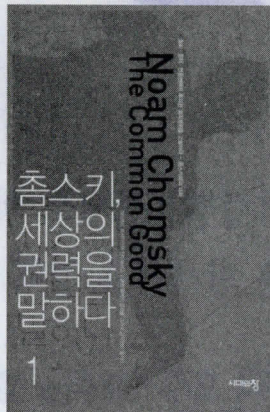
28 • 지부소장 새해 인사



1
2008

츰스키, 세상의 권력을 말하다 1, 2

“정치 경제 언론권력의 추악한 범죄행위를 고발하다
- 츰스키와의 대화”



노엄 츰스키를 데이비드 바사미언이 인터뷰함
강주현 옮김, 김용민 삽화
시대의 창, 2006년 발행

즐거찾기를 해 놓은 몇몇 인터넷 사이트들이 있다. 게시판을 훑어보면 현재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최대 쟁점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많은 내용들이 올라오고, 때로 전문적 영역의 상당한 식견이 돋보이는 글들도 만날 수 있어 좋다. 어떤 사이트의 한 게시판에서 줄곧 논란이 되었던 사안이 있는데, 지난 대선 기간 ‘연예’와 ‘오락’을 중심으로 한 그 게시판에 왜 정치관련 글을 올리는가와 왜 올리면 안 되는가하는 첨예한 대립이 그것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가장 이용도가 높은 이 게시판에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논점을 올려 토론해 보자고 주장하는 측과 정치이야기는 게시판 성격과도 맞지 않고 여기서 조차 정치 이야기를 보기는 싫으니 하지말라고 주장하는 측이 그 정치적 입장도 분명하게 갈라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모 교회 선교단의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때에도 이 같은 논란은 그대로 반복이 되었다.

이 논란을 지켜보며 이 책 「츰스키, 세상의 권력을 말하다」의 한 대목이 떠올랐다. 이 책의 1권 1장 ‘공익과 민주주의 적들’ 가운데 ‘민주주의는 어떻게 몰락하는가’에서 츰스키는 ‘우익은 도서관을

싫어하며, 국민에게 도서관이 불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주려 하는데 이는 사회를 부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설계하려는 생각의 일환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 바로 이 대목을 보면 ‘정치 이야기는 싫다’는 냉소주의를 가장한 문지마시의 옹호 혹은 ‘그 *이 그 *’이라는 식의 무조건적 양비론이 왜 통용되는가 짐작이 간다. 토론이 싫은 것은 사고하기 싫다는 것이고 다른 이들도 자신들처럼 생각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미국의 양심’으로 불리는 노엄 츰스키는 생성문법이론으로 언어학의 한 획을 그음으로써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1928년에 태어나 29세에 미국 MIT 대학의 부교수, 32세에 정교수, 37세에 석좌교수, 47세에 ‘인스티튜트 프로페서(하나의 독립된 학문기관에 상응하는 존재)’가 된 그는 언어학을 넘어서 철학·인지과학·심리학 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역사·문화·사상 등 다방면에서 학문적 성과와 탁월한 성찰을 보여 주었다. 그는 1966년 〈뉴욕타임스〉에 가고한 ‘지식인의 책무’에서 “지식인은 정부의 거짓말을 세상에 알려야 하며, 정부의 명분과 동기 이면에 감추어진 의도를 파악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비판은 특히 미국의 외교정책-언론-지식인의 유착에 주목하여 그 본질을 폭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야만성과 실상을 깊숙이 파헤쳐 왔다.

이와 같은 츰스키의 사상적 측면을 보여주는 「츰스키, 세상의 권력을 말하다 1, 2」는 미국의 독립방송 ‘얼터너티브 라디오’의 진행자 데이비드 바사미언이 츰스키와의 세 차례에 걸친 대담을 편집해 3권으로 출간했던 것을 국내에서 하나의 주제로 엮어 2권으로 편집한 것이다. 츰스키는 평생 약자의 편에서 왔으며, 그래서 늘 국민들에게 기본권을 쟁취하라고 촉구해 왔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체없이 달려가라고 한다. 행동할 때만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말이다.

이 숙 현 편집부장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2천원씩 또는 년 2만원, 평생회원은 3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은행 101-50446-244 가정법률상담소
우리은행 085-003398-01-006

연락처 780-5688 사무국



일찍이 눈 밝은 선인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눈을 밝으며 들길 걸어갈 때
모름지기 발걸음을 어지럽히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뒤에 오는 이에게는 이정표가 되리니.”

새 날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내린 눈 위에 첫 발을 내딛듯이
달력의 첫장을 정성스럽게 넘기며,
일기장의 첫장에 조심스럽게 첫 글을 남기며,
마음을 다해
앞에 펼쳐질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아침입니다.

정성으로 쌓아올린 우리의 집, 상담소의 작은 방마다
격려와 위로와 지혜가 넘쳐
고단한 이들의 심터가 되고,
어두운 길을 밝혀줄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서 있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정을 이루는 그 날까지
앞장서 바른 걸음으로 걸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직원 일동